

## R-11. 치근활택술 전후의 치간유두 위치변화

이창식\*,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간치조골 고경의 상실이나 치주치치 후 조직 퇴축으로 인한 치간유두의 고경상실은 심미적인 부전을 야기한다. 치주치료 전 치간유두의 치간공극 점유는 치간접촉점에서 치간치조골정 간의 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거리가 5 mm 이하인 경우 치간유두는 거의 100 % 치간공극을 점유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Tamow, 1992). 이러한 상관관계가 치주치치 후에도 유지되는 것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치근활택술 전 후의 치간유두 위치와 치간접촉점-치간치조골정간 거리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시행하였다. 성인형 치주염을 가진 23명의 환자의 상악전치 86개의 치간유두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치아 사이의 접촉점이 긴밀한 상악 전치에 국한하며 수복된 치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초진 시에 치간접촉점(C)에서 치간치조골정(AC)까지의 거리를 마취 하에 sounding법으로 측정하고 치간유두 최정점과 치간접촉점간의 거리(C-AC)를 재래식 탐침자로 측정하고, 치근활택술 시행 후 3, 6, 9, 12 개월마다 (평균 9.9 개월) 동일한 측정을 반복하였다. 치료 전 후의 탐침부착 수준과 치간유두위치의 변화량도 측정하였다. 얻어진 data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근활택술 시행 전 후 모두 C-AC의 크기가 치간유두정점의 위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치간유두정점의 위치의 변화나 치간유두 근원심 부위의 부착수준의 획득/상실은 C-AC의 크기와 미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로부터 치근활택술 시행 전과 후에 공히 치간유두정점의 위치는 C-AC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